

순천시, 기업이 먼저 찾는 산업·미래 도시 조성

수출 관련 물류비·선적비 지원...금융 부담 완화책 마련 기업 유치·산업 활성화 등 산업단지 수요 증가세 '긍정적'



울촌산단 전경

순천시가 산업단지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원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항만 선적비 지원사업(1억5000만원), 장기 재직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의 임금 지원사업(1억원), 중소 제조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 대출 이자지원사업(12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고금리·고물가, 보호부

역 강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승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예산 소진 전 조기 마감에 예상될 정도로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RE100 실현이 수출기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천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 순천시의 노력은 산업용지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순천일반산단, 울촌일반산단, 해룡산단, 주암농공단지 등 4개 산업

단지는 모두 조성을 마치고 분양률 100%를 달성한 상태로 활발히 가동 중이다.

문제는 산업단지의 성공이 곧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입주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유지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룡선원 농공단지, 순천 도시첨단산단, 해룡산단(2·2단계) 등 3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며 미래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순천은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여수신항 등 육상과 해상

을 아우르는 교통망을 두루 갖춘 남해안권의 핵심 거점도시다. 여기에 타 지역 대비 인구 증가 추세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산업 입지, 물류 접근성, 노동력, 정주 여건까지 고르게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순천은 점차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지역 활력 요소를 갖춘 도시"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해수청, 오동도·거문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새단장'

야간 경관조명·체험형 숙소 등 콘텐츠 실시설계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대표 명소인 오동도와 거문도 등대해양문화공간을 관광체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정비하고, 관광객이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오동도 등대해양문화공간은 야간 방문객 유입을 위한 감성경관 조명을 도

입하고, 광장 내 부족했던 그늘 공간을 확충하는 등 휴식 기능을 강화, 이를 통해 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기존 홍보관은 단순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재구성해 등대의 문화적·관광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거문도 등대해양문화공간은 자연경관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체험



오동도 등대



거문도 등대

숙소' 기능 개선에 집중한다. 단순한 숙박을 넘어 거문도만의 해양문화 체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차별화된 콘텐츠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

해 오동도와 거문도등대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생고흥유자막걸리 라이트' 우수성 인정

고흥 농동양조,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수상

고흥 농업회사법인 ㈜농동양조의 '생고흥유자막걸리 라이트'가 최근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탁주생막걸리 전통 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가볍고 청량한 고흥유자막걸리 라이트

전통주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군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크다.

농업회사법인 ㈜

농동양조는 '전통의

맛과 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다양한 우수한 우리술을 선보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류 대상은 국내 주류 산업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맛과 향, 품질,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주류 품평회이다.

생고흥유자막걸리 라이트는 고흥 특산물인 유자의 상큼한 풍미를 살린 제품으로, 낮은 도수와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다. 특히 젊은 소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의미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와 협력해 고흥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양,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온힘'

이차전지 전문가 포럼 개최 리튬·니켈 생산 경쟁력 강조

광양시는 최근 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문가 포럼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기초원료 분야)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전남도와 협력해 준비해온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앞두고, 광양만권이 보유한 기초원료 분야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포럼을 통해 광양만권의 준비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의 핵심 강점으로 포스코퓨처엠 등 15개 이상의 전·후방 소재 기업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 포스코그룹 등 엔지니어링의 대규모 투자 계획, 광양항 인프라를 활용한 원료 수급의 용이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재발표에서는 전기차 기업의 배터리를 생산 계획과 연계한 완성차 공



광양시는 최근 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장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원료·소재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 광양만권을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수준의 리튬·니켈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국가

공급망 안정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하며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거듭 제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원료부터 소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가 이미 구축된 상태"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4월 발표령

가와 현장실사에 철저히 대비해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중심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기초원료 공급망 거점 확보를 목표로, 특화단지 최종 유치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장흥, 전남 유일 '농촌공간정비' 공모 선정

2030년까지 회전면 진목지구 83억 투입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사업비 83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위폐시설을 이전·정비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회진면 진목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진목마을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가옥 분포 등 폐기물 처리시설 2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악취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왔다.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귀농·귀촌을 기피하는 주민이 돼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군은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해당 시설을 정비하고, 정비 부지에는 주민공유쉼터와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사업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공간 재건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사업비 83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보성, 녹차골 청춘대학 제40기 입학식

보성군은 최근 노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녹차골 청춘대학 제4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식에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지닌 신입생 50명을 비롯해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환영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녹차골 청춘대학은 1986년 3월 개설 이후 올해로 40기를 맞은 보성군 대표 평생 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교육 기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 생활, 교양생활, 안전·예방교육, 건강·노래·체조교실 등 실생활에 유익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매일 둘째·넷째 주 목요일 월 2회 진행되며,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병행해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광채 청춘대학장은 "1986년부터 이어 온 우리 대학의 역사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 덕분에 계속되고 있다"며 "입학한 50명의 학우가 12월 졸업식까지 낙오 없이 함께 공부하며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곡성, 산불 원인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곡성군이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오산면 선세리 산불을 시작으로 1월 30일 곡성읍 죽동리, 2월 18일 오산면 운곡리까지 총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오산면 선세리와 곡성읍 죽동리 산불은 수사를 마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산불 원인 조사 결과 오산면 선세리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주택 화재가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읍 죽동리는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오산면

운곡리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 각각 원인으로 추정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꽂이를 투기하는 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wsl@gwangnam.co.kr